



다문화적 사역의 선구자

한인 이민사를 빛낸 사람

이동진 목사 (1915-2010)

이동진 목사는 1915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나 1919년 5살 때 3.1 만세운동 전날 사랑방에서 어른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인 청년 결사대 단장으로 3.1 운동을 이끌었던 아버지 이용린 목사는 이후 한 달간 쫓기다가 일경에게 잡혀 모진 옥고를 치렀다. 이동진 목사는 1929년부터 평양 숭실학원에서 수학하다가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폐교되자 중국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중국까지 쫓아 온 일본 경찰에 체포돼 입학도 못 한 채 평양으로 돌아갔다. 공부할 방도를 찾다가 1936년 동경의 일본대학에 입학해 2년 후 졸업했는데, 신사참배 거부 사건으로, 미국으로 추방됐던 숭실학원의 조지 맥컨 박사의 주선으로 1938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에 하와이에 잠시 정박한 것이 하와이와의 첫 인연이었다. 그는 하와이가 삶의 터전이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오와주 파슨스(Parsons) 칼리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켄터키주 루이빌장로교신학교를 졸업해 1943년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았으나 2차대전 때라 미국 국방성 정보국에 차출돼 대일 선전방송 일을 했다. “영어와 일어를 할 줄 아니까, 영문으로 된 선전문을 일어로 번역해 라디오로 직접 방송했다”고 한다. 미국 국방성 정보국 일을 그만두고 1945년부터 8년간 사우스다코타와 워싱턴 및 오레곤에서 아메리칸 인디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폈다. 그러다가 1세를 위한 우리말 목회와 2세를 위한 영어목회가 모두 가능한 목회자를 애타게 찾던 감리교단의 요청으로 1952년 제일한인감리교회(현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 하와이와 다시 인연이 시작됐다. 그와 하와이 한인역사를 연결해 보면 이민 50주년 행사부터, 75, 90주년 행사에 참여했고, 100주년 기념행사까지 참석한 역사의 산증인이다. 그리고 그는 기념행사마다 하와이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변화, 성장했는지를 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 목사는 1982년 타민족 교회에서 은퇴 후 하와이에서의 첫 부임지였던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으며 각종 한인 단체의 자문, 고문으로 ‘지혜로운 어른’ 역할을 맡았다 (KA우먼스클럽, 한인미술협회, 국제밝은사회운동). 이민 90주년 행사 때는 이민사 사진집 ‘그들의 발자취’ 편집위원으로 참여해 책에 역사적인 자료를 많이 실었다. (여기까지 2003년 4월 24일 복음인(<http://www.ingn.net>)에 실린 기사를 수정하여 실었다.)

미국에서 이동진 목사는 다인종, 다민족적 목회를 하였다. 1952년에 하와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로서 한인 1, 2, 3세를 위한 이중언어 목회를 하였다. 그 후 백인교회, 일본인교회, 필리핀교회, 사모아교회 등을 섬기고 1982년 California-Pacific Annual Conference에서 은퇴하였다.

이동진 목사는 2세 교육에도 앞장서 한국 숭실중고등학교와 숭실대학에, 루이빌장로교신학대학원,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및 웨슬리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기부했다. 또한 2004년부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 목회자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전달하여 목회자 양성에 일조했는데,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장학위원회는 이 장학금을 CST의 영구장학금으로 기부하였다. 이동진 목사는 이 같은 공로로 한국과 미국의 모교로부터 우수 동문상과 2005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았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면서도 비폭력과 존엄성을 유지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동진 목사는 신앙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목회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23세에 아직 분단국가가 아니었던 한국을 떠난 그는 94세로 소천하기 전까지 하와이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하와이의 “지주”이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인격적으로 뛰어난 목회자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동진 목사의 삶은 한국의 근대사와 미국 이민사의 중요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의 이야기는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한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적응과 통합, 그리고 신앙의 힘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의 삶은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

